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대우조선해양



세계2위의 규모를 자랑하며, 임진왜란 첫 승전지인 거제도 옥포만에 자리 잡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였다. 130만평의 대지 위에 세계 최대 크기인 900톤 골리앗 크레인과 정규축구장 9개 넓이의 100만톤급 도크 등 초대형 최신 설비를 갖추고 2만 6천 여명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이곳은 작은 도시를 연상시킨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매우 중시하는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시 재정수입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글 | 오정규 협회 경영기획부 과장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과 기술을 갖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73년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출범한 이후 2006년, 연매출 5조4천억 수준의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였다. 이익률으로만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내재가치 면에서 업계 선두로 평가받고 있다. 연간 대형 상선 50여척, 육상플랜트 30기, 각종 상선과 5천톤급 대형 구축함, 전투잠수함을 비롯한 질 좋고 다양한 해양 플랜트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20만m³급 초대형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등 고부가가치의 상징인 LNG운반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

전 직원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

오늘의 대우조선해양이 있기까지는 어려움도 있었다. 지난 1981년에는 조선소 완공과 함께 불어닥친 오일쇼크로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경영혁신 운동 및 전 직원의 단합과 눈물겨운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대우그룹 해체와 함께 지난 1999년 시작됐던 워크아웃을 불과 2년 만에 졸업했다. 아울러 이듬해인 2001년에 3조156억원의 매출과 1,576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조선·기계업종 1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는 대내외에 높은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지역민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9천여 명의 대우조선해양 사회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문화공연 지원과 연 200여건의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병원 설립지원, 학교시설 설립 운영 등 400억원 이상의 지원활동을 통해 향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2119는 대우조선해양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자체소방대의 명칭이다. 안전보건팀 산하에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회사 전체적인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활동과 소방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2119의 역할은 화재의 진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 야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 및 사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후 3~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119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한다. 특히, 소방대 직원의 제안에 따라 건조중인 선박에 설치한 조기경보용 자동화재경보설비 시스템은 경쟁업체에서 앞다투어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업무 특성상 건조중인 선박이 용접불티에 의해 발화된 후 수 시간 뒤에 큰 화재로 번져 수 십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적극적인 안전의식은 해외의 주문자들에게도 높은 신뢰를 줘 현재 3년치 이상의 수주물량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협회가 실시하는 위험관리에 대해

‘매년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 및 시설보완이 화재 등 재난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정호식 2119 소방대장은 협회가 활동범위를 더 넓혀 화재·폭발 분야 외 다양한 분야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에 나서주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라 점증하는 풍수재해에 대한 협회의 대책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간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의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 (☎)

